

다산포럼



전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6월 25일 경북 경산의 압량 행복발전소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경북시민재단이 마련한 '역사적 상처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행사였다. 이 자리에 73년 전 팔공산 유격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와촌면 박사리마을 유족들과 72년 전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이 초청되었다. 그동안의 고통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노란 장미 코사지를 서로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시작된 이 행사에서 유족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작업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앞으로의 소망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두 유족회장들은 특별히 준비한 꽃다발을 교환했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과 화해를 상징하는 흰 장미와 보랏빛 공작초가 들어 있었다.

팔공산 깃바위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산줄기 끝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 박사리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담긴 것은 1949년 11월 말이었다. 한 달 전에 이웃 마을에 사는 한 나무꾼의 신고로 팔공산 빨치산들이 토벌된 일이 있었는데, 그 보복으로 다른 무장대가 들어다

백장미와 공작초

쳐 주민 38명을 살해하고 주택 100여 채에 불을 지른 후 도주했다. 아직까지 그들의 정체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유족들은 1961년 9월 작은 '반공훈비'를 초등학교 운동장 한쪽에 세워 희생자들을 기억하려고 했고, 1985년에는 반공위령비를 세워 아픔을 달랬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을을 벗어나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히 찾아와 위로하는 사람도 없었다.

평산동의 코발트 광산은 1950년 여름 인근 지역의 보도연맹원들과 대구형무소 재소자 수천 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현장이다. 이곳은 1980년대 후반에 한 안경공장이 설립되어 약 10년간 조업하다가 폐업한 후 공포 체험장으로 널리 알려졌고, 전쟁 당시의 참극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망각되었다. 2007년부터 3년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곳의 수직갱도와 수평갱도에서 유해를 발굴한 이후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유족들은 이곳의 유해를 완전히 발굴한 후 평화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군에 속해 있지만, 지난 70년간 박사리에서 코발트광산으로 가는 길, 또는 코발트광산에서 박사리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아예 왕래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시민단체의 뜻 있는 분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그 길의 중간 지점을 만남의 장소로 선택했다.

이날 모임에서 박사리 유족들은 자신들의 희생에

관한 무관심 때문에, 코발트광산 유족들은 지역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당부도 있지 않았다. 코발트광산 유족회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유족들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입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진실 규명 신청인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사과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사리 유족회장은 진실 규명 이후에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기념관이라도 하나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영남대 김문주 교수는 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겪는 애환을 토로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온 정치의 섬, 역사의 섬 현상을 극복하려면 지역 사회의 경험을 승화시키는 문화예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경산시를 화해와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고, 시장 당선자도 이를 결정했다. 가장 울림이 컸던 것은 "우리는 그동안 말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코발트광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박사리 유족회장의 언급이었다.

그렇다. 화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작은 위로로부터 시작되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하게 된다. 화해의 출발이 될 가을의 추모제가 기다려진다.

청춘 특특

약관과 방년, 그리고 청춘



김성우
조선대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3년

"보호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한다." tvN 방송사의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진행한 김창욱 교수는 사회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실현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진다고 언급한다. 반면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충실하게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성인의 의미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보통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뜻한다. 남자의 경우 글을 쓰는 나이라고 해서 약관(弱冠), 여자의 경우 꽃다운 나이라고 해서 방년(芳年)이라고도 칭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대를 어른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를 굳이 해석하면 일부 30~40대도 마찬가지

지로 적용될 수 있겠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적이 있나 모두 한 번 생각해 보자. 20대는 왜 '어른이(어른+어린이)'라고 불릴까. 30~40대만 봐도 독립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20대만 '어른이'라고 불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사회에 나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무언가를 시작하는 단계니 서투를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흔히 자칭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부터 완벽한 '어른'이 되기를 강요받는다.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한 부모 세대 눈에는 20대가 당연히 결함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20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20대는 그저 '경험'이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부족한 것 뿐 아닌가. 20대 대부분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교과과정을 이수했으며, 원하는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20대는 스스로 경험을 쌓아 가고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청춘은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다른 나이 대와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

기고

어떻게 해야 전남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강효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불안해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高)에 시달리고 있다. 무기질 비료의 국제 수급이 불안해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비료·농약·사료값, 유틸리티 등 농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생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모두 생산비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시기에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에 취임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어깨가 무겁다.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생산물 가격이 제자리'라면 농가의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전남의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첫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을 조직화·규모화해야 한다. 규모의 정도에 따라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시장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 전남도에서도 선도 농업인 육성, 틈새 경제체 육성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산지 유통시설 지원 등을 통한 규모화를 지속 추진해 온 만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둘째, 최소한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봄에는 저온, 여름과 가을에는 집중호우와 대풍, 겨울에는 이상 한파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장마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남 농촌 들녘은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에 도비를 추가하여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 정책 보험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사건·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만큼 농업인들께서 꼭 가입하시기를 권한다. 셋째, 농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농촌다움을 체험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촌을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기 위해 주거·환경·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 재생 뉴딜을 실시하고, 메밀·유채·청보리·밀 등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

촌 체험 휴양 마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생산·가공·유통·체험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 넷째, 아열대 작물 등 고소득 작물 위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과수·채소·특용작물 등은 벼에 비해 소득이 높은 품목이다. 즉, 동일한 면적에 농사를 지을 경우 이들 작물을 재배하면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먹거리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도의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과수·채소·특용작물 등 고소득 품목 재배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남도장터 활성화를 통한 직거래 시스템 구축, 안전 먹거리 생산을 통한 전남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앞으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과 같이 농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인간은 산업이 없더라도 살 수 있지만, 농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E.F. 슈마허의 말이 크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社說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이 최적이다

전남도가 기초과학 연구와 첨단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초격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한국에너지공단과 자리한 나주에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 빛가람혁신도시 내 50만㎡의 부지에 2024년부터 10년간 9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200페타와트(PW, 1PW는 1000조W)급의 세계 최대 규모 초고속·초에너지 기반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반도체·우주항공·에너지·의료 장비 등의 분야에 핵심 기술로 응용되는 레이저는 기초과학과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된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는 초고속·초고온·초고압 등 극한 연구환경을 실험실 내에서 구현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자연 현

상을 탐구할 수 있게 되고, 원천 기술 확보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 전남도가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 배경이다.

전남도는 2년 전 1조 원 규모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공모에 도전했다가 충북에 아깝게 밀렸다. 이번에도 연구시설 부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 다른 시도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각계 인사 10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먼저 준비에 간 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에너지공단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초과학,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 광주광산업단지 와 연계해 '레이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주가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 경북과 충북에 쏠려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돼야 할 것이다.

반발 거센 '만 5세 취학' 공감대 형성부터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자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엿그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현재 초등학교 6세 입학은 1949년 '교육법' 제정 때 도입됐다.

이에 광주 지역 학부모·교사·교원단체 등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주부들이 주 회원을 맘카페에서 한 학부모는 "아이 들은 한두 달 앞으로도 성장 차이가 크다. 발달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어찌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 교사도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6세에 맞춰

편성돼 있는 1학년 교육과정부터 몽땅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도 학부모도 준비가 안 돼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주 교육 대상이 만 5세 아이인 유치원은 준비에 역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학제 개편안은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일견 긍정적 인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당장 입학 연령이 하향되면 학교 시설을 재배치해야 하고 교원 수급 문제도 있다.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도 커질 수 있다. 공립 초등학교는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까지 하교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제 개편에 앞서 현 교육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속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無等鼓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관객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개봉한 지 닷새 만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한국 영화 흥행 기록(1760여 만 명)을 세운 전작 '명량'을 넘어설 기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와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 영화 '한산'에 대한 민심의 호응이 크다는 평이다.

영화 '한산'은 임진왜란 발발과 함께 파죽지세로 조선을 짓밟고 진군하던 예군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일궈내 나라의 명운을 바꾼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한산해전'을 그렸다. 영화 '한산'은 전작 '명량'과는 결이 다르기도 하지

신뢰의 리더십

만 본질은 같다. 명량에 이순신 장군은 용맹하고 강렬한 모습 이 강조된 반면,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략적이고 절제된 침착함이 돋보였다. 그럼에도 명량과 한산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일맥상통한다. 정치 부재 상황에서 절대명령의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이름 없는 민중들이라는 점이다. 절망적 상황에서 수군들과 민초들의 결집을 통해 승전을 일궈낸 이순신 장군의 '신뢰의 리더십'도 잘 묘사됐다.

전 카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위기와 여론의 혼란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용맹하고 강렬한 모습 이 강조된 반면,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략적이고 절제된 침착함이 돋보였다.

결국 시대적 위기의 해법은 신뢰다. 정치나 경제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 '한산'은 위기에 직면한 여권에 시사점이 크다. 위기 극복은 신뢰의 리더십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잘 그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과연 민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한 쇄신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